

國際原油價格조정 국내에는 영향없다. 換差損 등으로 오히려 1.2% 인상요인 남아

OPEC(石油輸出機構)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① 초경질유와 重質油간의 가격차를 종전의 배럴당 4달러에서 2.4달러로 축소하고 ② 종전의 기준유가제를 사실상 철폐하고 기준원유인 아라비안 라이트 가격을 배럴당 29달러에서 28달러로 인하하며, ③ 배럴당 26.5달러인 아라비안 헤비의 重質油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④ 나이지리아産 보니아이트의 경질유가격을 배럴당 28달러에서 28.65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OPEC 총회에서 결정된 인하폭은 최근 국제석유시장의 현상을 追認한 것에 불과할 뿐, 국내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력자원부는 이번 OPEC의 결정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油種別 가격을 조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복합단가는 배럴당

0.48달러가 싸져 油價를 1.5% 내릴 수 있고, 원유도입비용도 연간 1억 8백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나, 국내 油價에 반영된 환율이 83년 12월 1일 7백97원90전에서 85년 1월 1일 8백29원50전으로 올라 국내 原油費는 이미 3.7%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자부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내석유 시장구조가 마진이 높은 휘발유 등 경질유판매비중이 높아지는데 힘입어 정유사의 수익증대가 1% 가량 늘고 있어 이를 인상요인에서 상쇄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내 油價에는 1.2%의 인상요인이 계속 남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동안 국내정유 5社는 환율이 4%나 상승하고, 국제금리가 고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原油代 부분에서 4백60억원, 유전스 부문에서 7백20억원 등 총 1천 1백80억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되었다.

85 에너지수급계획 石油은 3.1% 늘어

우리나라는 올 한해동안 지난 해보다 6.5% 증가한 5천 7백40만톤(석유환산)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4일 동력자원부가 발표한 85년도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르면, 안정적 경제성장에 따라 금년에는 石油가 전년대비 3.1% 증가한 2억94만 8천배럴, 무연탄이 2.7% 증가한 2천 4백56만 3천톤, 유연탄이 18.2% 증가한 1천 5백33만 7천톤, 전력이 10.2% 늘어난 5백18억 5천만KWH가 각각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에너지수요의 증가로 올해 에너지해외의존도는 작년의 75.8%에서 77.3%로 늘어나고 수입금액은 지난 해의 67억 9천만 달러보다 5억 3천만달러가 더 많은 73억 2천만달러가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너지 총소비량은 5천 3백89만 6천톤(석유환산)으로 83년도 보다 8.4%가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해 광공업이 14.1%나 고도성장했고, 작년 연초의 흑환으로 가정용 연료의 소비가 83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해의 에너지源別 소비상황을 보면, 석유가 83년도대비 1.9% 증가한 1억 9천 4백88만 7천 배럴이며, 무연탄은 2천 3백91만 7천톤(10.4% 증가), 유연탄은 1천 2백 97만 1천톤(34.7% 증가) 등이다.

OPEC의 주요原油價格 조정내용

(單位: \$ / B)

油種	新價格	중전가격	조정폭
〈重質油〉 아라비안 헤비(사우디 아라비아)	26.50	26.50	0
〈中質油〉 아라비안 미디엄(사우디 아라비아)	27.40	27.40	0
〈輕質油〉 아라비안 라이트(사우디 아라비아)	28.00	29.00	-1.00
미나스(인도네시아)	28.53	29.53	-1.00
머반(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28.15	29.56	-1.41
보니아 라이트(나이지리아)	28.65	28.00	+0.65

印尼마두라海서 油田 2개 또 발견 可採매장량 各 1억배럴씩

동력자원부는 韓국의 코테코에너지社와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社가 공동개발중인 인도네시아 마두라해역에서 추정가채매장량이 1개 지역에 1억배럴인 대규모 유전 2개를 또다시 발견했다고 지난 1월 31일 발표했다.

제2유전, 제3유전으로 명명된 이 유전들은 지난 해 8월 상업성을 인정받은 제1유전에서 북쪽으로 30~40km 떨어진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매장량은 2억5천만~3억 배럴이며, 가채매장량은 각각 1억 배럴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새 유전의 가채매장량은 제1유전의 가채매장량 2천2백만 배럴보다 각각 4~5배나 큰 규모이다. 또 하루생산량도 제1유전의 1만5천배럴보다 1.3배나 되는 대규모 유전이다.

동자부는 올해안으로 새로 발견된 유전에서 각각 1개씩 평가정을 뚫어 확정가채매장량을 알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탐사자료에 따라 이들 유전에서는 각각 하루 2만배럴 이상의 기름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자부는 제1유전에 대한 생산시설작업은 현재 플랫폼 설치작업이 거의 완료될 단계에 있어 오는 7월초부터 하루 1만3천~1만5천배럴씩의 석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2, 제3유전에서 기름이 생산될 경우 마두라해역에서 공급되는 기름은 하루 5만5천 배럴인데 코테코측이 이의 판매권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국내 하루 소비량의 10%의 물량을 자주적으로 안정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 LPG공급삭감 2월부터 60% 통보해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2월부터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LPG의 淸韓공급량을 연간 50만톤에서 20만톤으로 60% 삭감하겠다고 도입선인 麗水 에너지에 통보해 왔다.

동자부는 현재 국내에는 5만톤의 LPG가 비축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LPG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국내 LPG수급에는 별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油公 신입사원 43명 채용 2월부터 현업에 배치

油公은 지난 1월 7일자로 85년도 전반기 대졸신입사원 43명을 채용했다.

신입사원들의 전공별 구성은 인문사회계 17명, 이공계 26명인데 이들은 1월 31일까지 본사, 공장, 鮮京연수원에서 신입사원연수 교육을 받고 2월초부터 현업부서에 배치되었다.



湖南精油 기구개편 소매·직매담당상무 분리

湖南精油는 지난 1월 1일자로 일부기구를 개편했다.

개편내용을 보면, 종전의 영업담당상무의 기능이 소매담당상무와 직매담당상무로 분리되어 소매담당상무는 본사소매부, 釜山영업소, 大邱영업소, 湖南영업소(光州 사무소 승격)를 관장하고, 직매담당상무는 특수판매부, 기술판매부, LPG판매부(신설)를 관장하게 된다.

또 기존의 원유/수급부서가 종합기획부를 신설, 종합기획/원유/수급부서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종전의 사업기획/건설부서는 영업부서 안건과의 기능을 사업지원/안전관리부로 확대 흡수하여 사업/건설부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전산담당상무가 새로 신설되어 전산부의 기능을 전산개발부와 전산운영부로 확대 분리하여 관장하게 된다.

새로운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사장=具平會
- ◇수석부사장=M 레이드마이어
- ◇기획조정담당이사=JW 엘리오트
- ◇총무/업무/법제부서
 - ▲부사장=金鍾環
 - ▲총무담당상무=李相淇
 - ▲업무/자재담당상무=權五倫
 - ▲법제/인사/인력개발담당상무=李文浩
- ◇재무부서
 - ▲부사장=JP 크란코프스키
 - ▲재무담당전무=朴秉禧
 - ▲경리/관리/재정담당상무=鄭鎮九
 - ▲감사/제도개선담당상무=李東勳

- ▲전산담당상무=金汎洙
- ◇종합기획/원유/수급부서
 - ▲종합기획/원유/수급담당전무 許東秀
- ◇사업/건설부서
 - ▲사업/건설담당전무=金大基
- ◇영업부서
 - ▲영업담당전무=李榮周
 - ▲영업담당전무=RB 크르크
 - ▲영업기획/개발담당상무=徐聖洙
 - ▲직매담당상무=李榮燮
 - ▲소매담당상무=趙芳來
- ◇생산부서
 - ▲생산담당전무=EH 웨이드
 - ▲공장장=印柱善
 - ▲총무담당상무=劉秉勳
 - ▲공무담당상무=徐宗鎬
 - ▲생산담당상무=丁海喆

湖油 신입사원 51명채용 1월말부터 현업에 배치

湖南精油는 85년도 신입사원 5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부터 26일까지 신입사원연수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28일부터 현업부서에 배치되었다. 부서별 배치인원은 영업부서 17명, 기술부서 15명, 전산부서 5명, 재정부서 4명, 사무직 10명 등이다.

京仁, 백승진과장 표창 공장새마을운동 공로로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의 백승진 품질관리과장은 지난 2월 6일 공장새마을운동 확산·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로 공장새마을 추진본부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安全管理종합진단 받아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京仁에너지 仁川공장은 지난 1월 25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진단을 받았다. 이는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법 입안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경제기획원 주관하에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업안전협회, 치안본부, 보건사회부 등 총21명으로 점검반이 구성되었으며, 일반안전, 고압가스관계, 소방분야, 공정관리부분, 보건관계 등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점검결과는 대체로 양호하여 京仁은 외부관여없이 자주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총평을 받았다.

京仁 尹차장 해외연수 2월 4일부터 12일간

京仁에너지 윤도영 정비부차장은 지난 2월 4일부터 12일간 美国·Atlanta에서 개최된 NPRA주최 정유공장 정비기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정유시설의 발전현황 및 정비기술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Borgwanner Industrial社를 방문, 첨단정유시설도 견학하였다.

京仁에너지 전산실 이전 仁川공장에서 本社로

京仁에너지 電算室은 연초 대용량의 신컴퓨터 기종을 도입하는 등

시에 사무실을 工場에서 本社로 옮겨 신속하게 보다 많은 정보처리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작년말까지 1일 16시간 가동체제에서 24시간 풀가동체제로 전환하였다.

老人會에 월동용 땀감 京仁, 이웃돕기일환으로

京仁에너지는 지난 1월 22일 仁川정유공장 인근 석남동에 있는 동심노인회에 화물트럭 1대분의 월동용 땀감을 전달, 많은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京仁에너지의 仁川공장 직원들은 그동안 이웃돕기 및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꾸준히 벌여왔는데 이 땀감은 폐물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雙龍精油 B-C油탱크 완공 10만배럴용량 2基

雙龍精油는 10만배럴 용량의 B-C油 탱크 2기를 완공, 지난 1월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저장탱크 공사는 제1기를 84년 9월 20일 착공한데 이어 2기도 착공, 3개월만인 지난 해 12월 말 2기 완공과 함께 각 1~2주간의 수압테스트를 거쳐 이날 가동에 착수한 것이다.

雙龍 신입사원 공장실습 대졸 17명 50일동안

雙龍精油 제6기 대졸신입사원 17명이 지난 1월 25일 약 50일간

에 걸친 공장실습교육을 마쳤다.

지난 1월 4일부터 溫山공장에서 부서별 오리엔테이션과 현장실습교육을 거친 이들 신입사원들은 3월 1일자로 각 부서별 배치 발령을 받게 된다.

지난 해까지는 전공분야에 따라 3~6개월간 실시되어온 신입사원 공장실습교육이 올해부터 기간을 대폭 단축함에 따라 내용면에서는 크게 밀도를 높여 진행되었다.

雙龍精油 10년사 편찬사업

내년 上半期 발간목표

雙龍精油가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쌍용정유 10년사」 발간사업이 지난해 말까지 관련자료의 수집이 일단 마무리됨에 따라 1월부터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갔다.

「쌍용정유 10년사」는 오는 12월 까지 본문원고 집필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5월까지 모든 제작을 마치고 회사창립 10주년이 되는 6월 28일 이전에 발간 완료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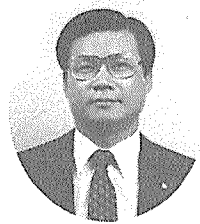
極東石油 사원채용

신입 : 40명 경력 : 13명

極東石油는 지난 1월 신입 및 경력사원 53명을 채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들중 신입사원은 총응시자 3,098명중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된 우수사원으로서 2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장실습교육을 마친 후 곧바로 각 부서에 배속되어 極東石油 공장증설사업에 일역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張洪宣 極東사장 국군장병 위문



極東石油 張洪宣사장 및 임직원 일동은 새해 1월 26일 육군〇〇부대를 방문, 동절기 국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군장병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石油協會 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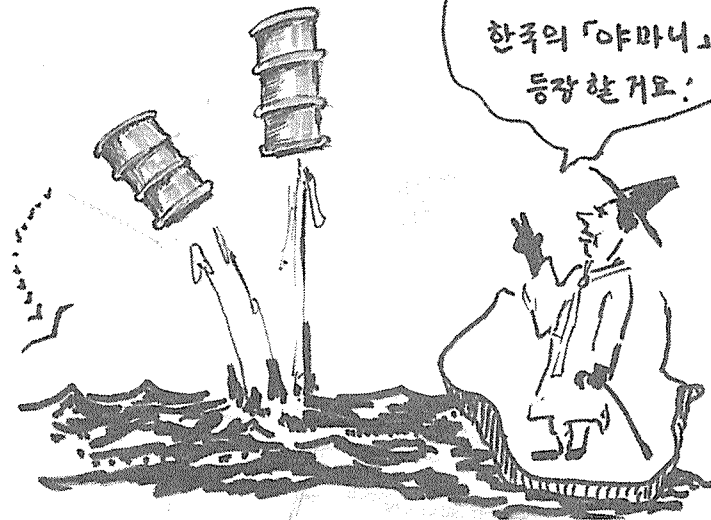
□ 전보 (2월 15일자)

- ▲업무부장 孫泰泳 (기획부장)
- ▲기획부장 金泰允 (업무부장)

□ 漫 評 □

「마두라」油田 2개 또 發見! 야 많이...야 많이...

한국의 「야마니」가 등장할 거요!



한 瑞月油